

해남 고구마·배추 재배 현황 한눈에

군, 농업인 1018명 대상 호남지방통계청 특산물 첫 실태조사

해남군 대표 특산물인 고구마와 겨울배추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가 실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 고구마와 겨울배추의 재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2 해남군 특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해남군 특산물실태조사'는 군 대표 특산물인 고구마, 겨울배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활용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했다.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확산을 위해 호남지방통계청과 통계업무 대행협약을 맺어 추진되었으며, 이후 특산물 재배실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될 예정이다.

고구마 426명, 겨울배추 592명 등 총 1018명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

경영주 기본사항 ▲특산물 경영사항 ▲조직·판매·유통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정책 사항 ▲해남군 자율항목 등 5개 부문 33개 항목을 조사했다.

고구마 재배 농민들의 생산경력은 고구마 평균 17.2년, 겨울배추 26.4년으로, 80%이상 농민들이 전업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고구마의 주 판매처는 직거래 29.4%, 포전거래 23.5%, 도매시장 19.3%, 농협 등 생산자 조직 16%인 것으로 나타났고, 겨울배추는 포전거래가 8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생산자 조직과 직거래가 5.4%로 뒤를 이었다.

가격 전망은 고구마 40.3%, 겨울배추 43%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고구마 27.4%, 겨울배추 6.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고구마 24.1%, 겨울배추 41.8%로 나타나 향후 작물별 수급 대책을 세우는 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은 통계 개발 과정에서 통계의 신뢰도와 정확성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군 특산물 관련 부서와 생산자협회 관계자 등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산물 정책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조사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해남군 특산물 재배 농업인의 실태 자료가 특산물 관련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매우 귀한 자료가 될 것이며,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해나갈 예정이다"며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호남지방통계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해남군 특산물실태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해남군 홈페이지(통계정보)사회조사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2023년 흑토끼 목포 유달유원지에 가다



목포시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앞두고 대반동 유달유원지 진입계단 1개소에 흑토끼 포토존을 조성했다. 시는 야간조명을 마련했으며 영상장 일출, 서해 노을, 목포대교와 고하도 해상데크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토끼 옆 모습을 형상화한 조명물도 설치했다. <목포시 제공>

“서남권 통합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자”

목포신안통합추진위, 대토론회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배광언)가 최근 목포시 하당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서남권 통합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남권의 공동번영을 위한 통합과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계기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희망의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주제발표 및 토론

로 나뉘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양승주 목포대학교 명예교수의 '서남권 통합과 발전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양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서남권의 통합을 통해 지역역량을 극대화 시키고, 이런 힘을 바탕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이어 최영수 교수(세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득수 제1기 어울어카데미 회원, 정영덕 전 전라남도의원, 김화무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장, 박옥석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대토론회를 개최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활동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이며, 지난해 6월 발족식 이후 서남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지역민 대상으로 총 5강좌로 구성된 '어울어카데미'를 개최해 40여 명의 수강생들에게 서남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삼지구엽초 먹은 '완도활력소' 나왔소

일반 소보다 불포화 지방산 30% 많아 육질·풍미 개선

완도군은 완도산 삼지구엽초를 먹고 자란 프리미엄 한우 '완도활력소(牛)'(사진)가 출시됐다고 밝혔다.

완도활력소는 미세날을 공급하는 무항생제 친환경 사육 방식에 삼지구엽초가 함유된 사료를 먹여 사포닌 성분을 함유했다.

한 대학교에 의뢰한 활력소 육류 성분 검사 결과 사포닌을 함유한 한우라는 객관적인 근거도 확보했다고 군은 전했다.

사포닌은 홍삼의 대표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면역력 강화와 노화 억제 등에 도움이 된다.

사포닌을 함유한 소고기는 육질과 풍미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불포화 지방산과 올레산이 일반 소보다 30%가량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활력소는 해양 치유 발상에 쓰이는 중요한 식재료로 일반 한우와는 맛과 영양 부분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활력소는 시장 최고가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소 가격 하락과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10월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중앙회와 농업회사법인 S&H 등과 완도활력소 사육 기반 구축 및 공급 확대 등에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전남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생긴다... 내년 7월 진료

복지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외지 방문 불편 사라져

진도 전남병원이 보건복지부 '2022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 7월부터 소아청소년 전문의 진료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의료취약지역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중순 보건복지부의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진도군의

소아청소년과 개설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선정 평가회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진도전남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 받는다.

진도 전남병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문의 1명, 간호사 5명 등을 배치해 내년 7월부터 소아청

소년과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진도군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지역에 상주함에 따라 그동안 진료를 받기 위해 목포시와 해남군 등 외지로 나가야 했던 주민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 진도전남병원 병원장은 "진도 전남병원에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면 지금까지 목포시 등 대도시로 진료를 위해 다녔던 시간과 경비 절감에 기대"며 "전문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춘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의료 복지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js7777@

현대삼호중-해군 '정비운영 혁신·DT기술 협력' 협약

현대삼호중공업은 해군 헬기의 운영, 정비,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제609교육훈련전대(전대장 하성욱 대령)와 '정비운영 혁신(정리, 정돈, 정소, 정결, 습관화) 및 DT(디지털 전환)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제609교육훈련전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승환 현대삼호중공업 상무와 하성욱 전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비환경 개선에 필요한 운영 혁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DT기술 및 업무 개선 활동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반기별 1회 실무자 회의를 실시한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비환경을 조성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MOU 외에도 해군 제3함대와 지난 2013년 10월 선박안전 기술교육, 소방교육 협력 등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한 이

후 부사관 특별 채용 전형 운영, 명명식 군악대 지원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 제1회 정원지킴이 양성교육 수료식

신안군이 최근 2022년 제1회 정원지킴이(정원해설사) 양성교육(기초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사진> 정원지킴이(정원해설사) 수료생들과 함께한 이번 교육은 지난 11월 7일에 개강하여 12월 16일 까지 매주 월요일, 금요일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신안군은 올해 각 읍·면 홍보를 통해 정원지킴이 양성교육 신청자를 모집하였고 신안군 정원 자원의 이해 및 명품 해설을 위한 스피치 교육 등을 제공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박우량 군수는 "1심 1테마정원을 만들어 가고있는 1004섬에서 정원지킴이의 역할이 매우 크며 대표적인 신안군 정원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신안군 정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정원지킴이(정원해설사)로서 열심히 활동해 주기 바



란다"고 당부에 말을 전했다.

한편, 신안군은 2023년 상반기에 제2회 정원지킴이 양성교육(기초과정)을 한 회 더 진행 후 기초과정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테스트를 거쳐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뒤 정원지킴이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군, 2023년 무안사랑상품권 1000억 발행

내년 1월 설명절 10% 할인

무안군이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무안사랑상품권<사진>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한다.

군은 내년 무안사랑상품권 발행·판매를 위해 군비 약 80억원의 예산을 우선 확보해 평상시 6%, 명절이 속한 달과 그 전달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지역상품권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QR결제형) 3가지 유형으로 판매중이며 지류형 상품권(5000원, 1만원, 5만원) 또는 카드형 상품권(충전식)은 관내 판매대행점 43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형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구매·충전이 가능하다. 개인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모바일의 경우 총 200만원까지 보유 가능하며 관내 전통시장, 주유소, 마트, 병원 등 3798개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으로 무안사랑상품권 지급과 관광지 입장료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등 지역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도 집중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암에 청년들이 온다

1만6730명으로 전체 인구의 30% 차지 절반 타지 전입 "3년 후에도 거주" 56%

영암군의 청년(만 19-49세) 인구는 전체의 3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은 호남권 등 타지역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이 호남지방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영암군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1만 673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31.6%를 차지했다.

이들 청년 인구의 71%가 상호읍(56.6%)과 영암읍(14.4%)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암군 청년

10명 중 5명(45.6%)은 타 지역에서 전입했다. 전입 직전 거주지는 호남권(49.1%)과 수도권(19.5%), 광주광역시(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3년 후에도 영암군에 거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10명 중 6명(56.2%)이었으며, 희망하는 주거 관련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확대(43.3%)에 이어 보증금·전세금 대출지원(31.9%) 등이 차지했다.

청년들의 결혼여부는 절반이 조금 넘는 55.9%가 '결혼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혼 적정 연령으로는 '30-34세'가 가장 많았다.

필요로 하는 출산·육아 정책으로는 주거비 부담 완화가 59.7%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 장려금 확대와 무상보육 확대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영암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청년 정책으로는 주거 및 생활안전 정책, 청년 고용촉진 정책, 청년 복지증진 정책 등을 꼽았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해 조사한 이번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포괄하는 통합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젊은 생각과 혁신적인 방식으로 군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